



5면

도도동 미래농업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음 10월 7일) 제386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크루즈 활용,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열쇠 되나

숙박난 해결 등 '기대감'

전북자치도, 신한만 활용 크루즈 숙박시설 도입 검토
한 척당 1000~3000명 수용해 대규모 숙박 수요 충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로 접근성 개선, 관광 여건 갖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앞두고 크루즈를 활용한 숙박 해법이 주목된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숙박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 해양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신한만 조감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IOC 가이드라인 상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숙박 기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새만금 신한만을 활용한 크루즈 숙박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크루즈 한 척당 1,000~3,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 숙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호텔 신축 대비 크루즈 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다. 건설 비용이 들지 않고 대회 종료 후 유지비가 절감되는 부담이 없다.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최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대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개최 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숙박시설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대회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호텔 유치 활동과 건립 기간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용도의 크루즈 활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열린 새만금 신한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크루즈 관광객 1인당 1회 기항 시 평균 96

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당 2,000명이 승선하고 연간 10회 기항한다고 가정하면 직접 지출 연간 약 27억원, 간접은 100억원 수준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운항하고 있는 코스타 세레나호를 기준으로 올림픽 기간 중 10만 톤급 크루즈 2척을 유치할 경우 1인 1실 기준 2,000~3,000명의 숙박이 가능해진다.

관광 여건으로도 새만금은 탁월한 조건을 갖췄다. 고군산군도와 부안 채석강 고창 갯벌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이 인근에 있고, 익산 미륵사지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회 현장까지의 접근성도 개선됐다.

실제로 대형 국제행사에서도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상호텔' 크루즈선 2척이 운영됐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항구에 크루즈 2척을 정박시켜 숙박을 제공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도하항에 크루즈호텔 3척을

운영하며 총 1만 개의 객실을 공급했다. 일본 2020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촌 활용 방안으로 크루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신한만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관광 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홍콩과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크루즈 기항지를 활용한 상품 기획이 용이하다. 중국 국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 블루드림 크루즈 등 다수의 선사가 존재해 협력 가능성도 높다.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선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대회 이후에도 정기적인 크루즈 기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에는 새만금개발청과 홍콩의 글로벌 해운서비스기업 월렘 그룹(Wallem Group)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03년에 설립된 월렘 그룹은 크루즈 기항지 운영·에이전시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새만금 신한만 크루즈 기항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해, 크루즈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한만은 2028년 2개 선석(잡화·크루즈, 잡화)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4개 선석(잡화 4)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조성되는 새만금 신한만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2m인 인천 크루즈터미널과 비교할 때 22만 톤급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개장 예정인 2개 선석의 부두 운영사가 이미 선정돼 선박 입항 지원 체계가 갖춰지면서 크루즈 유치에 정진호가 켜졌다.

도 관계자는 "크루즈 활용은 하계 올림픽 유치를 넘어 서해안 크루즈 허브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해안도시 브랜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대회 실현, 전북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 국제 관광산업 도약이라는 다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인니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공식 우호교류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마히예디 안사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에 대한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철도통합 로드맵’ 내달 발표 예상

이 대통령 대선 공약... 김윤덕 국토부장관, 28일 철도통합 3차 간담회 참석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철도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김 장관이 참석한 오는 28일 열리는 철도통합 3차 간담회에서 통합 로드맵에 대한 구상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원화된 철도운영사의 통합을 논의하는 3차 간담회가 오는 28일 개최된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로 각계의 의견



전문가들은 양사의 서비스 운영에는 이견이 없으나 철도운영사 통합에 대해서는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철도노조에는 따르면 양 운영사 통합시 405억의 중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일 1만6000석의 좌석 증가효

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KTX 운영을 SRT와 같이 10% 인하하더라도 470억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SR은 철도운영사 경쟁을 통한 철도 요금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점에서 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차 간담회에서 철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후 내달 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업계 및 일각에서는 철도 로드맵 발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내달 중순경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희성 기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시행 | 법 일부 개정 따라... 납부기한일로 변경

국민연금공단은 25일부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개정한 후속 조치로, 그동안 '추납보험료를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납제도란 실업,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026년부터 현재 9.0%에서 매년 0.5%p씩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되는 것과 맞물려 가입자 간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은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과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임실군의회
IMSIL-GUN COUNCIL

열린의정! 으뜸의회!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실군의회

김상중
시장김종규
부시장양주영
의원장동현
의원김성호
의원정일권
의원이성재
의원